

[혁신성장의 비전과 전략(Ⅱ): 정책, 제도 및 사회적 기반]

---

# 중국 상해 제조컨퍼런스 및 사회과학원 방문 출장 보고

---

2019. 10. 7

# 1. 출장 개요

## □ 내용

- 글로벌 제조기업 다쏘시스템이 고객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조 컨퍼런스 (Manufacturing In the Age of Experience, MAOE)에 연구진을 초청  
- MAOE는 상하이 CIIF(China International Industry Fair) 기간에 실시 되어 중국의 산업 발전과 시장 변화 트렌드를 함께 볼 수 있음.
- 또한 상해 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시 정부의 혁신노력과 한-중 협력 방안,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

## □ 목적

- 혁신성장연구단은 2년차 협동연구 중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구하고, 선진기업 사례를 연구
- 중국 국제산업박람회 및 다쏘시스템의 제조 컨퍼런스 방문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디지털화 현장을 보고, 중국경제를 견인해 가는 기업들을 면담
- 시정부 산하 인문사회 연구기관인 상해 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시 정부의 혁신노력과 한-중 협력 방안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 출장자 : 혁신성장연구단 연구진 4명

- (내부) 서중해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지은 경제정보센터 총괄
- (외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 출장 일정

일 시	내 용
9월 17일	출국 (16:00 김포 출발)
9월 18일	다쏘시스템 Manufacturing In the Age of Experience 1일차
9월 19일	다쏘시스템 Manufacturing In the Age of Experience 2일차, ABB 기업 방문 등
9월 20일	상해 사회과학원 방문 및 면담 (10:00~12:00) 귀국 (18:25 상하이 출발)

## □ 출장지 : Sky Banquet, 1162 Wai Ma Lu, Huangpu Qu, Shanghai 등

## 2. 출장 내용

### 1) 2019 다쏘시스템 제조컨퍼런스 참가

#### □ 다쏘시스템 제조컨퍼런스(MAOE: Manufacturing in the Age Of Experience)

- 글로벌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업체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은 국내외 고객사 및 관련 전문가 초청 행사를 매년 개최
  - 다쏘시스템 : ‘3DEXPERIENCE’를 비전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에 필요한 가상화 및 시뮬레이션, 설계, 생산, 각종 지원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 전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22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
  - 2019년 MAOE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하며, 다쏘시스템과 주요 고객사의 기초발표와 인터랙티브 워크샵, 기업방문 등으로 구성
    - 제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3가지 축을 제시

<지속가능한 제조업의 3가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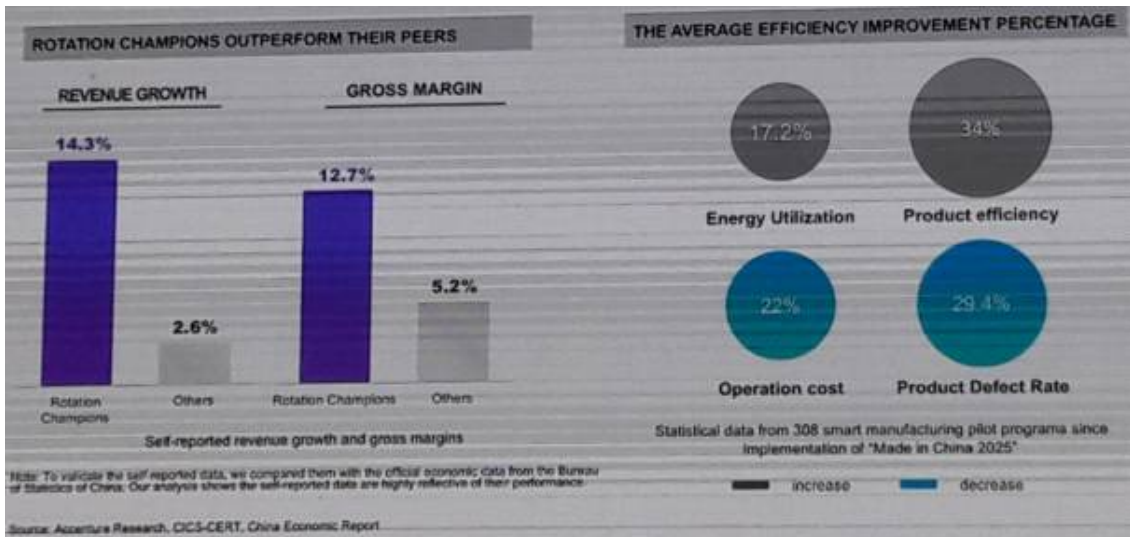
3가지 축	주요 내용
Workforce of the future	Safety / Collaboration / Empowerment / Autonomy / Fulfillment
Global operations optimization	Better plan / Eliminate the 7 wates (MUDAS) / All activities / All operations
Value networks	Long-term profitability / Agility and speed / Optimize & coordinate all value streams / Streamline energy resources / Foster collaboration, transparency and harmony

#### □ 글로벌 공급사 동향

##### ① 액센츄어(Accenture) : 글로벌 경영컨설팅 및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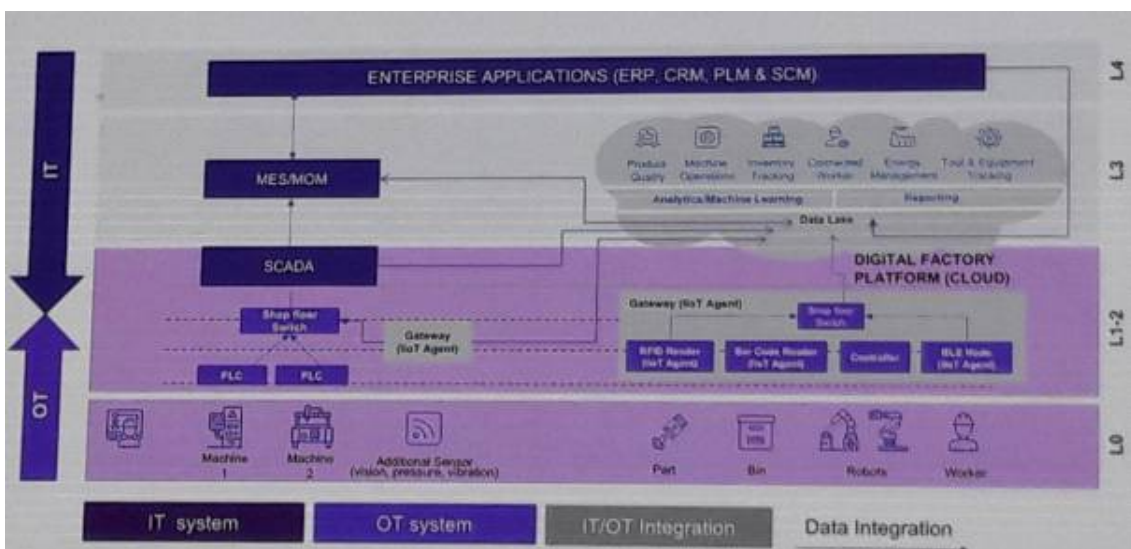
- 중국 10개 도시의 1,8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3%가 스마트제조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으나, 스마트화 추진 기업 중 9%만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든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고, 비재무적 지표(에너지효율, 생산효율, 운영비용, 불량

를)에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스마트의 중요성을 시사  
 <디지털 전환 기업의 성과>



- 액센츄어는 제조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
- 스마트공장은 제조의 투명성, 신속함, 지능화, 자기진화 등의 특징을 보유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기반과 운영요소(지능화된 생산계획, 스케줄링, 생산제어, 물류,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업무관리 등)를 필요로 함.
- 스마트제조를 위한 디지털 기반은 IT와 OT의 결합과 데이터 통합으로 구현되나, 현재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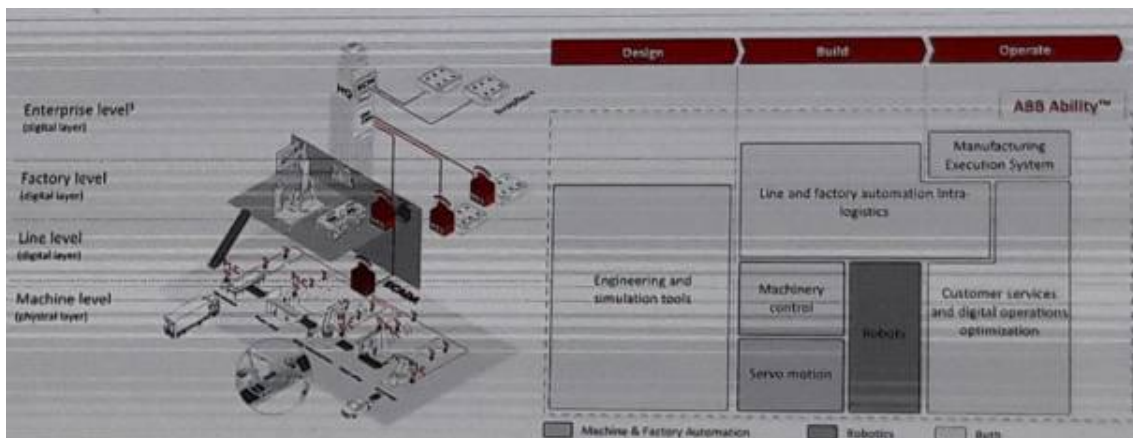
<디지털 기반 : IT-OT의 통합>



② ABB Robotics : 공장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공급기업으로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수요사의 디지털화, 유연화, 협력적 생산 등을 지원

- 산업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제조업의 변화가 요구
  -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구조 및 경쟁구도는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 : 운송서비스공급자(우버 등), IT기술기업(구글 등), 신규 OEM 등
  -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이해 필요 : 자동차 완제품/부품/소재의 근본적 변화, 배터리 기술, 전기 구동부품과 기존부품의 밸런스, 부품수 급감 등
- 디지털화 솔루션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 운영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 변화를 유발하며, ABB는 이에 대응하는 종합적 솔루션 제공
  - 특히 디지털트윈은 제조공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한 물리적 설비의 시뮬레이션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IoT와 분석 알고리즘은 공장의 실시간 유지보수를 지원

<ABB의 스마트제조 솔루션 범위>



\* Machine control, Servo motion : 기계/공장자동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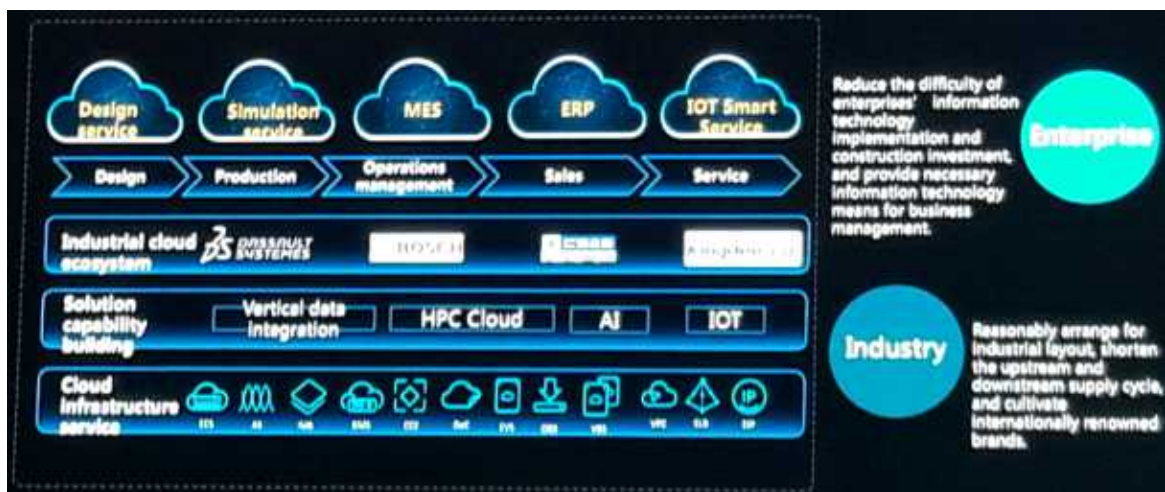
□ 글로벌 수요사 동향

① 화웨이(Huawei) : 글로벌 통신기기 및 스마트폰 제조기업이며, 다쏘시스템 등 공급사와 협력을 통해 산업인터넷플랫폼과 클라우드를 제조기업에 제공

- 화웨이는 클라우드, AI, 5G의 잠재력에 주목
  - 2025년,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 활용, 97%의 주요 기업이 AI 활용, 클라우드 상의 어플리케이션 77%가 AI 기반
  - 클라우드와 AI, 5G의 결합 :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선, 보안이 중요한 핵심(고성능) 어플리케이션 수요에 모두 대응할 것으로 기대

- 지능화된 산업인터넷은 지능, 네트워크, 개인화, 맞춤화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반과 핵심 데이터, 보안이 필수적
  - 화웨이는 글로벌 제조기업으로서 공장운영과 경영 모든 측면에서 제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와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
  - 또한 화웨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FusionPlant’를 통해 타 기업에서도 다양한 스마트제조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산업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추진
    - 화웨이의 클라우드 상에서 다쏘시스템의 각종 소프트웨어 솔루션(설계, 시뮬레이션, 지능형 앱, 협력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화웨이의 FusionPlant : 산업 클라우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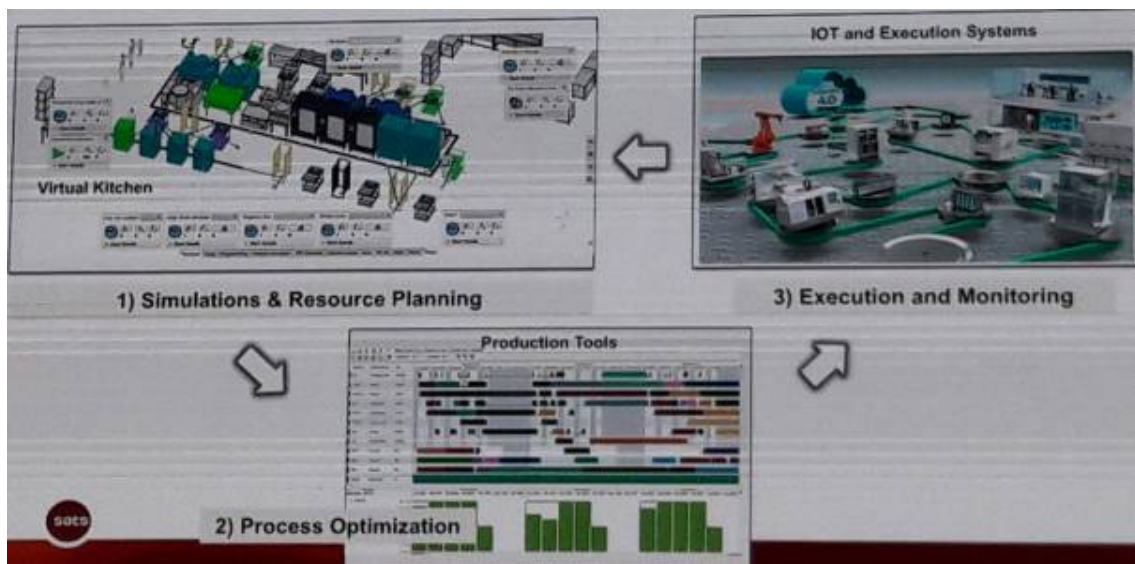
- 화웨이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아래의 4가지 전략을 추진

디지털 격차 해소	시골 및 소외지역으로의 통신망 확장 2017년 시골 지역의 1천만 명 이상의 통신환경 지원
네트워크 보안 및 사생활 보호	1,500개 네트워크 이상의 고객에게 안정적 통신환경 제공 200개 이상의 글로벌 재해/사고에도 안전한 보안 네트워크 3GPP SA3 네트워크 보안 표준 186개 제안 개인 사생활 보호 훈련 실시
친환경 촉진	주요 제품 생산의 에너지효율 20% 향상 모바일폰 5개 제품은 UL110 그린 인증의 최고 등급 취득 공급자 파일럿 프로젝트는 매년 63,000톤의 탄소배출 저감 19.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종업원 보호에 126.4억 위안 투자 4,100개 사업장에서 EHS(환경/보건/안전) 글로벌 감사 Global Supplier Sustainability Conference 8회 개최(210명의 공급사 참석)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200개의 공동체 자선 이벤트

## ② SATS : 항공기 기내식 제조 전문 기업

- SATS는 2017년부터 디지털화를 통한 사업모델 전환에 착수
  - 기존 암묵지 상태였던 제조 노하우와 공정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및 IP로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선
- 디지털화는 3단계로 진행 중이며, 가상 부역 구현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현재 공정 최적화를 진행 중

<SATS의 디지털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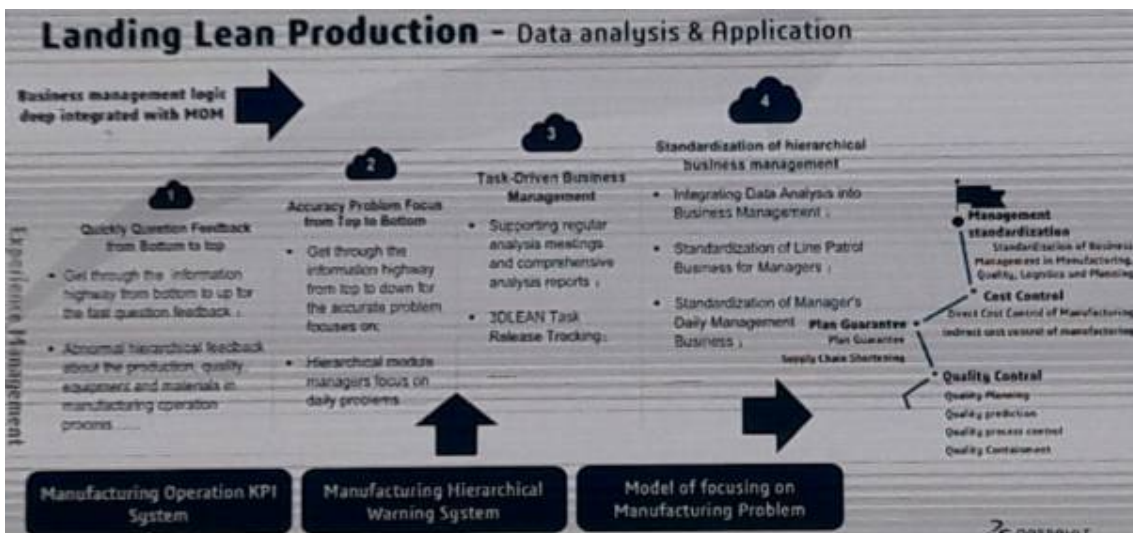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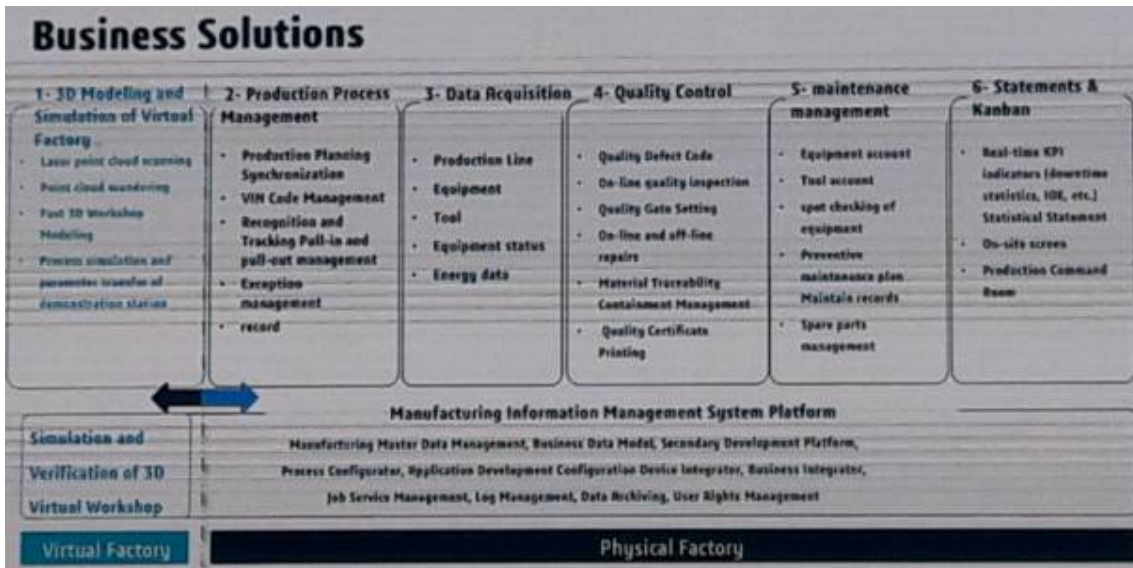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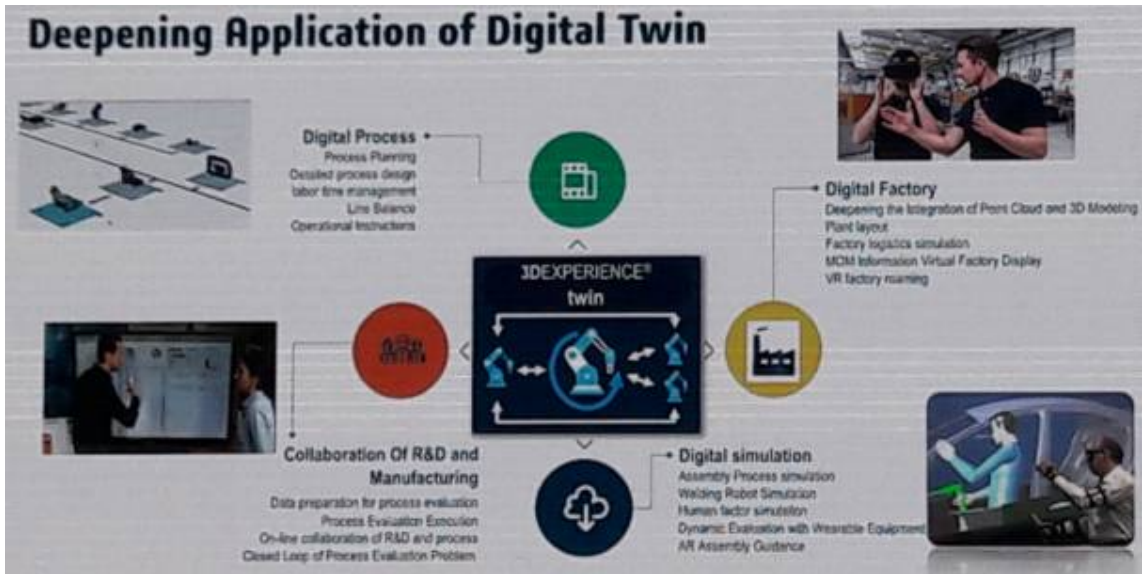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목표는 자산 활용의 최적화, 지속가능한 고용, 폐기물 최소화

달성을 위한 지표로 구성

③ FAW(First Automobile Works)(中国第一汽车, 중국제일자동차) : 중국 최대의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이며, 스마트제조를 통한 생산성 개선

-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의 공장을 디지털 세계에 구현하여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개선, 비즈니스 모델 확장 등을 가능케 함.
- FAW는 3가지 디지털화 목표를 수립하고, 비즈니스 솔루션(가상공장 구현 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Lean 생산 달성) 도모
  - 1) 디지털트윈 구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활용 증진
  - 2) 전체 제조업 가치사슬에 대한 제어와 데이터 분석 제공
  - 3) 지속가능한 최적화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 인터랙티브(Interactive) 워크샵

-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제조 및 업무효율 개선 사례를 데모 방식으로 소개



- 주로 제조현장과 작업자 업무, 생산계획 등의 가상화 및 가시화를 통한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의 8개 사례를 소개

<p>Maintenance Engineering</p>	<p>3D 입체 물체는 유지보수 계획, 실행, 예측을 도와주며 가상현실(VR) 훈련과 태블릿 교육을 통해 유지보수 효율 향상</p>	
--------------------------------	---	--

Collaboration & Lean Practices	팀 커뮤니케이션은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린(lean) 디지털화의 핵심요소임. 공정운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시화 및 업무처리 솔루션을 통해 물리적 거리와 부서간 장벽, 소통에 필요한 시간 절약	
Optimized Process Planning	엔지니어링과 제조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방법 소개. 차체기본골격(BiW)이 여러 로봇을 이용해 제작되는 라인의 시뮬레이션 사례를 통해 공정이 효율적으로 최적화되는 것을 제시	
Interactive Automation Experience	태블릿을 이용해 ABB로봇에 명령(글자 가공)을 내리고, 로봇의 동작이 프로그램과 동기화되는 상호작용을 경험	
Robot Programming & Virtual Commissioning	각 로봇의 움직임 궤적 및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전체 셀에서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소개	
Supply Chain Planning & Optimization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글로벌 공장의 전체 가치사슬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사업의 현실을 반영한 주요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실행 가능	
Operations & Monitoring	생산의 성과와 효율을 측정하는 여러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가시화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자동 알람과 이에 대한 3D 작업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제작 팀과 공유하여 공동 문제 해결 또한 가능	
Digital Twin Visualization	공장 내부를 매핑하여 작성된 3D 공장 지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조도구(tooling)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고, 3D 지도 상에서 실제 생산 데이터와 모든 장비에 대한 KPI를 열람할 수 있음. 빠르고 간편한 3D 지도 제작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디지털트윈을 최신 상태로 유지	

□ 중국의 스마트제조 동향

① CCID(China Center for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 중국전자 정보산업발전연구원) :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산하 기관. 중국의 스마트

## 제조 추진 동향과 산업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소개

- 중국정부는 스마트제조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 2020년까지 전통 제조업의 핵심 영역에서 디지털제조 달성
  - 디지털 R&D 및 설계 도구 비중 70% 이상
  - 핵심 공정의 디지털 제어율 50% 이상
  - 디지털 작업장 및 지능형 공장의 비중 20% 이상
- 중국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년 15~16% 성장세 기록 중
  - 2016년 1,247억 위안에서 2018년 1,678억 위안으로 빠르게 성장
  - 2018년 기준 세부시장 비중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57.4%), 정보경영(28.7%), 생산제어(28.6%), 개발설계(14.5%)
  - 수요기업 구조 : 대기업(52.1%), 중기업(28.3%), 소기업(19.6%)
- 다쏘시스템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기업의 연구 개발투자 확대가 진행 중
  - 다쏘시스템, 지멘스PLM, 오토데스크, Synopsys 등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중국 내 시장 주도
  - 중국기업(Shen Zhou, Glodon 등)은 군수 및 항공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건축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경쟁 확대 양상
- 중국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9년 이후에도 연간 16% 이상의 고성장세가 전망
  - 2019년 1,949억 위안, 2021년 2,631억 위안 전망
  - (성장요인) 중국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중국 정부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장려 정책, 클라우드 기술의 성숙

<중국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분야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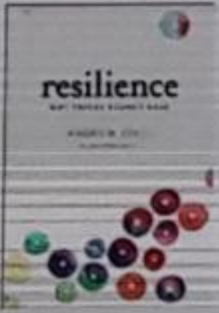
### 중국 제조업의 SWOT

강점(S)	약점(W)
Complete range of industrial system Efficient supply chain system Rapid applic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Rising cost of labor & raw material Overcapacity in low-end products Weak informatization foundation
기회(O)	위협(T)
Emerging industries (IC, New energy, etc.) Emerging technologies (AI, IoT, 5G, etc.) Integration of IT and MT Sustainability	Unstable market due to trade friction Pressu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industrialization in Europe and America

### ② IDC : 글로벌 경영컨설팅사로 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 수행. 아시아 지역의 2019년 제조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스마트제조 현황 분석

- 기업의 미래는 고객(공감), 지능(통찰), 운영(복원력), 작업(work)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중국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억제요소 보유
  - (우선) 생산성 향상, 데이터의 자산화, 데이터 창출 및 고객 중심 조직
  - (억제) 기술 리더십과 로드맵 부족, 펀딩 부족, 숙련도 부족
-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위한 복원력(Resiliency)

## Resiliency



**Resilient Systems -**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circumstances while maintaining its central purpose”

- Simple at the core, diverse at the edges
- **Tight feedback mechanisms.**
- Ability to marshal resources (swarm)
- **Sustainable**

-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조업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기업운영 발전방향과 우선투자 분야 제시
  - 중국의 정책방향(중국제조2025 등)은 제조업의 혁신과 지능화, 생산의 품질 향상,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개선,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강조
  - (운영 발전방향) WIP(Work In Process) 가시성, 제조 사이클 타임, 장비 효율, 수율 개선
  - (우선투자 분야) 제조 스마트화, 디지털 제조 및 시뮬레이션, 생산 현장 이동성 확보
- 중국 스마트화의 미래 :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요소
  - (우선) 고객 수요 패턴 이해, 생산성 개선 및 보증 비용 절감, 새로운 매출 및 사업모델
  - (억제) 데이터 품질, ERP와 운영데이터 통합, 생산 현장 이동성

## China 2025 and Future of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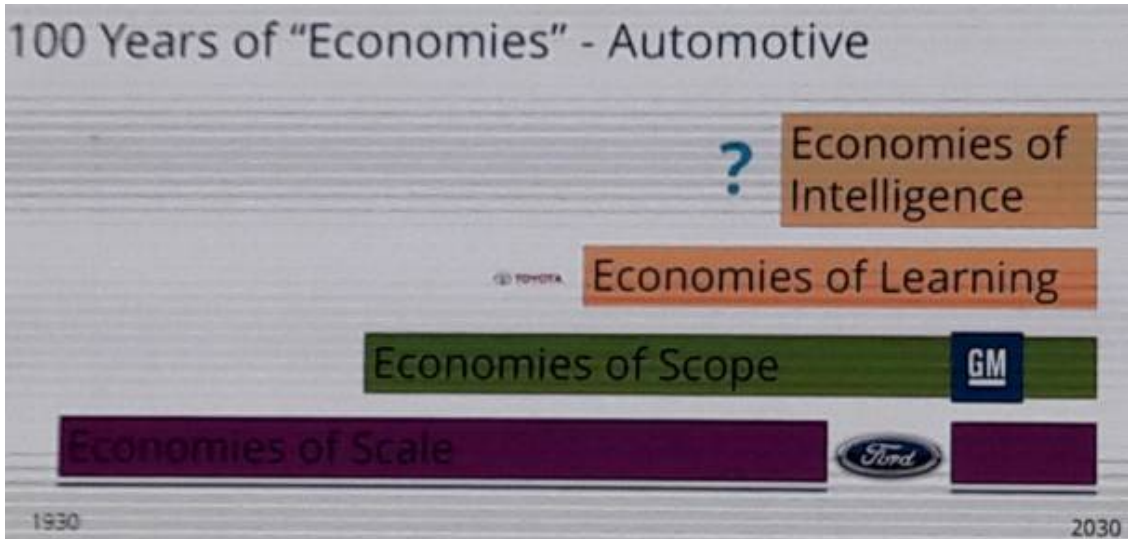
China Priorities for Creating Value from Data in Decision Making	CHINA 2025 FOCUS	China Inhibitors to Creating Value from Data in Decision Mak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nderstand Customer Usage Patterns</li> <li>2. Improve Product Performance/Reduce Warranty Costs</li> <li>3. New Revenue Models</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phasis on innovation-driven manufacturing</li> <li>• High quality production</li> <li>• Sustainable, green development</li> <li>• Optimize the structure of Chinese industry</li> <li>• Nurture talent development</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ata Quality</li> <li>2. Integrating Operational Data with ERP</li> <li>3. Shop Floor Mobility</li> </ol>

Source: IDC Asia/Pacific Manufacturing Survey, 2019

- 제조업 혁신은 과거 ‘규모’의 경제부터 ‘범위’의 경제, ‘학습’의 경제를 거

쳐왔으며, 미래에는 ‘지능’의 경제로 발전

- 기업은 완벽한 계측, 통합, 통찰을 위해 현대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였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기업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이 경험은 조직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을 학습하여 수익성이 증가



○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요소

- 클라우드 기반 API 전략 - 생태계 내에서 조화로운 데이터 교환
- PaaS(Platform as a Service) 상의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구조 - 마이크로서비스와 데이터 저장소
- 새로운 고객 경험 기술 - 사업모델의 고객과 생태계 완벽 지원
- 데이터 관리에 기초한 지능 코어(Intelligent core) - 인공지능, 머신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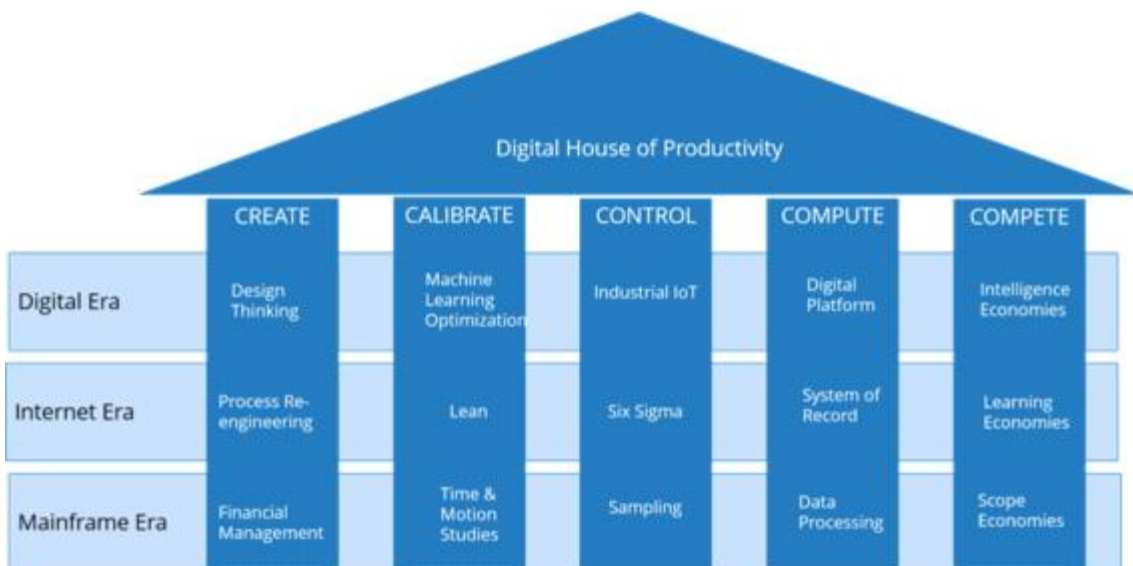
<디지털 플랫폼의 구조>



- 중국은 제조업의 리더이며 지속가능성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tform is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decision an enterprise will make in the next 1-2 years
- Technology is normalized, no marginal value
- Domain models demand Line of Business industry expertise - that is the key decision criteria
- Support new deployment models and...
- Efforts must be scalable and sustainable
-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anding markets, but time is of the essence

- IDC는 운영 우수성에 대한 과거의 접근법이 디지털 경제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하우스 제시  
<생산성의 디지털 하우스 개념도>



## (2) 상해 사회과학원(SASS) 방문 및 면담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0일 (금) 10:00~12:00,  
상해 사회과학원(淮海中路622弄7号)

□ 참가자(SASS)

- Zhang Jianbo,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 Xu Yun,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 Yu Xiaojing,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 Hao Qunhuan,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Zou Yi, Program Officer,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Fucai Cheng, Director& Professor,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상해 사회과학원 개요

- 상하이 시정부 산하 씽크탱크, 1958년 설립
- 상하이 발전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Founded	1958년
Renovated	1978년
Institutes	17개
Staff	744명
Graduates	약 700명
Retirees	767명
Incumbent NPC(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CPPCC(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Representatives	2명
Research Professors	133명
Associates Research Professors	177명
Scholars with PHD Degree	68%
Post-Doctoral Programs	2개
International Cooperatives	90건
Published Periodicals	15개
Collection of Books	100,000권
Financial Funding	390 Million
Area Size	73,083 m <sup>2</sup>

## □ 주요 내용

### <문제 제기 및 배경>

-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나 한국과 일본 간 수출규제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
- 인문사회 및 경제 전분야의 연구를 포괄하고 있는 KDI로서는 상해사회과학원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산업활동 및 비즈니스에 더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서중해 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일원)과 관련해 중국의 경험 공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산업 구조조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경제와 신경제 간에 상생전략이 절실. 항저우나 상해의 구경제로부터 신경제로의 성공적 전환 사례 공유.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득과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은 어땠는지.
- 다쏘시스템의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을 시도한 화웨이 사례(다쏘시스템이 주관한 제조컨퍼런스에서)를 통해, 한국은 스스로의 플랫폼에 의지하는 경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진 한계를 인식하게 됨.

### <중국 측 의견>

- 미-중 간 문제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중국은 제조업에서 이미 10년 전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은 중국을 의식하게 됨. 미국은 중국의 발전력과 경쟁력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윤 상실을 우려. 기존의 경쟁이나 제한으로부터 미국은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됨.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협력은 여전히 유효. 중국은 비용절감 하이테크 전략(skill dominated 기초연구)을 선택하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전략 shift.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경쟁하며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고 윈윈협력을 추구
- 한-일 간 수출규제 갈등 국면에 있어 한국의 대응방안의 하나로, 중국과 한국 간의 'Single Market'을 제안함. 한국과 중국 간에는 매우 낮은 단계의 FTA만 체결하고 있는 상황. 한국은 뛰어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뛰어난 혁신기술들이 빅 마켓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음. 중국은 큰 립과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제공할 수 있고, 항저우, 선전, 난징,

상하이 등 이커머스, 인터켓 등 빠르게 성장. 유니콘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선도하고 있음.

-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하이도 경제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하며 한국으로부터 배운 점도 많았음. 상하이는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을 커버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 자동차, 화학, 전력 등 매우 비대해진 전통 산업 구조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회사를 산둥, 광둥, 선전 등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성장률이 상승했고 상하이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됨. 의약,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했고, 이커머스나 파이낸스 부문에서도 글로벌 시티로 성장
- 중국의 두 번째 전략으로,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설계'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들 수 있음. 2008년 중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32위, 상하이가 이 중 55% 기여
- 격차(disparity)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베이징과 상하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양극화가 심화. 전통 기업들의 빠른 쇠퇴에 비해 신경제는 충분한 속도로 따라오지 못하면서 벌어진 현상. 이에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을 부양할 수 있는 로컬 룰,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Common Market' 외에 부문간 협력 강화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한국은 디스플레이 등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분야가 있으므로 원원할 수 있는 전략. Common Market의 예로 European Union이 참고가 될 것

#### <기타>

- 한반도의 남북 간 안정된 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역할. 경제협력으로부터 점증적으로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방법 등 논의
-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입장에 대한 시각 등